

신흥시장의 성장과 ESG 정보공시

김 선 민 연구원

- ▶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2009년 이후 30% 증가하는 등 신흥시장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흥시장 투자자들의 ESG 정보공시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 아직까지 신흥시장의 ESG 정보공시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각국 정부는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 하는 등 공시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배경

- 책임투자 및 ESG 리서치 회사인 EIRIS는 올해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신흥시장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흥시장 투자 현황 및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ESG 이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 'Evolving markets: what's driving ESG in emerging economies?' 를 지난 9월에 발간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으로 몰리고 있음. 이로 인해, 신흥시장 투자자들의 ESG 정보공시 개선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보고서의 주요내용

- 신흥시장의 성장과 ESG 정보공시
- 2012년 신흥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 GDP의 5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선진국의 시장규모를 따라잡을 것으로 보임
 - 2000년~2012년 사이에 선진국의 실질 GDP는 20% 증가한 반면, 신흥시장의 실질 GDP는 100% 이상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BRICS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빠르게 편입되면서 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기 때문임
 -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신흥시장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 금융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입은 신흥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임

- 신흥시장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ESG 정보공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유인요인(pull factor)과 추진요인(push factor)이 자리 잡고 있음
 - 유인요인은 ESG이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증가를 의미함. 최근 들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시 ESG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장기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신흥국 중에서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ESG 인식수준은 상당히 높으며 이들은 향후 신흥시장 ESG 정보공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추진요인은 NGO, 시민운동단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외부압력을 의미함
 - 이들 단체는 기업의 활동이 환경·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신흥시장과 ESG의 중요성

- 신흥시장에서 ESG 이슈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ESG 정보공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이슈에 관심이 높음
 - 일례로, 중국은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두었음

- 국제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통합보고서 작성시 가치사슬에 주안점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신흥시장 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경제에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 체계를 표준화하고 공시수준을 개선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신흥시장의 ESG 공시현황

- ESG 정보 공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들 국가는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지수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통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표 1〉 신흥시장의 ESG 정보공시 현황

2009 순위	국가	2012 순위	국가	순위 상승요인
1	브라질	1	브라질	브라질증권거래소(BM&FBOVESPA)의 ESG 정보공시 장려
2	남아프리카 공화국	2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배구조모범규준(King code) 및 상장요건 마련, SRI 지수 개발
3	중국	3	터키	ESG 정보공시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 변경
3	한국	4	말레이시아	ESG 정보공시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 변경
5	인도	5	중국	ESG 정보공시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 변경

- 한국의 경우, 2009년 ESG 정보공시에서 3위의 성적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5위권 밖으로 밀려남
- 신흥시장 투자의 방해요소
- 기업들의 ESG 정보공시 저조, 기업문화의 이해 부족 및 관련연구 부족은 신흥시장 투자의 가장 큰 방해요소로 나타남

ESG 정보공시 개선을 위한 신흥국의 노력

- 동 보고서는 신흥시장의 ESG 정보공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지수의 개발⁶⁾과 지속가능보고서를 의무화하는 상장요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현재, 신흥국들은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일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King III governance code를 마련하여 상장기업들의 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SASAC)와 협력하여 공기업의 ESG정보공시 및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의무화에 앞장서고 있음
- 또한, 신흥국 증권거래소가 주축이 되어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을 장려하고 있음
 - 브라질 증권거래소의 경우 'comply or explain'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홍콩 증권거래소의 경우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 홍콩의 경우, 이르면 2013년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할 예정임
 - 지난 2011년, 인도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s Bureau of India)에 상장된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였음

6) 10년 전 만해도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지수는 거의 없었으나 ESG 투자기법이 다양해지면서 관련지수도 증가하기 시작함